

# “호남 근현대사의 거울… 광주일보 창간 70주년 축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축하메시지

“광주·전남 발전, 광주일보의 역할이 매우 컸다”

광주일보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1952년 민족상잔의 참화를 딛고 창간한 광주일보는 광주·전남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쓰기까지 초심을 지키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기자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광주일보를 읽으며 지역 소식에 귀 기울이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키워온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일보는 호남 근현대사의 거울입니다. 4·19 이후 폭발하는 독자의 성원으로 지방신문 최초로 조선시대에 이어 진실과 경리를 전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아픔이 있었지만, 광주일보는 끊임없이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상생형 일자리로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호남예술제와 3·1절 마라톤을 주최하고, 광주·전남의 초광역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광주일보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일보가 담아낸 함께 잘 사는 빛고을 광주의 미래와 광주일보를 응원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광주일보 창사 70주년을 축하합니다.  
1952년 민족상잔의 참화를 딛고 창간한 광주일보는 광주·전남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쓰기까지 초심을 지키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기자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광주일보를 읽으며 지역 소식에 귀 기울이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키워 온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주일보는 호남 근현대사의 거울입니다. 4·19 이후 폭발하는 독자의 성원으로 지방신문 최초로 조선시대에 이어 진실과 경리를 전합니다. 당시에는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과 정의를 밝혔습니다. 신군부가 서거한 언론통제법의 아픔이 있었지만, 광주일보는 끊임없이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상생형 일자리로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호남예술제와 3·1절 마라톤을 주최하고, 광주·전남의 초광역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광주일보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생기합니다. 광주일보가 담아낸 함께 잘 사는 빛고을 광주의 미래와 광주일보를 응원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XM 국내 첫 확인

해외유입 포함 XE 2건·XM 1건 특이증상 없어… 자체발생 가능성도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 8101명 안정세 지속… 위험도는 ‘높음’ 단계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 아래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에 이어 ‘XE’, ‘XM’ 감염자 등이 처음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3020명, 전남 5081명 등 8101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는 한 요양시설에서 20명이 집단 감염됐으며, 기존 집단 감염이 확인된 요양시설에서 6명, 의료기관에서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각각 61명, 94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는 이날 22개 모든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 865명, 여수 827명, 목포 629명, 광양 482명, 나주 277명, 무안 216명, 해남 207명 등이었으며, 특히 해남 확

진자 가운데 44.5%에 달하는 93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다.

국내에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에 이어 ‘XE’, ‘XM’ 감염자도 처음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재조합 변이 XE 2건, XM 1건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XE 감염 2건 중 1건은 영국으로부터 유입돼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이며, 나머지 1건은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다. XM 감염 사례는 지난달 27일에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대·50대·60대 각각 1명이다. 감염자 모두 초기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으며 기존 바이러스와 구분되는 특이 증상은 없었다. 현재 감염자는 모두 격리가 해제된 상태다.

특히 새로 확인된 XE·XM 감염자 각각 1명은 해외유입이 아닌 지역 내에서 확인된 만큼, 국내 자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XE·XM 국내 발생 각 1건에 대해서는 해외유입(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자체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XE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인 BA.1과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로, 초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BA.2보다 약 10% 감염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영국·미국·아일랜드 등 4개국에서 489건이 확인됐으며, 이후 대만·태국·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XM 변이는 오미크론 BA.1.1과 BA.2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로, 아직 기존 바이러스와 차이를 보이는 특성 변화는 보고된 바가 없다.

한편 코로나19 감소세에도 지난 주(4.10~4.16) 우리나라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이 아직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직전주(4.3~9)에 이어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높음’으로 진단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위험도는 2주째 ‘높음’을 유지했고, 비수도권의 위험도는 직전주 ‘매우 높음’에서 지난주 ‘높음’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제안 광주·전남 아젠다  
호남, 미래를 선점하라

### 1면에서 계속

균형발전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초강력 에너지연구시설,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고기장연구소, 미래자동차 연구시설 등 대규모 국책 연구기관이나 프로젝트를 얻어내기 위해 지역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망 기업을 호남에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촉구하고, 자체 외 지역민은 그 중요성을 인식해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청년과 아이는 지역 미래의 근간이다.

기후위기, 에너지 고갈 등의 세계적인 여건을 고려해 현재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분명한 태도와 실행, 모범 사례의 보급이 절실히 한다.

70년간 호남의 정론지로 자리한 광주일보는 호남 미래를 위해 변함없이 불편 부당의 정론을 폄고, 문화 정당의 선봉에 서며, 지역 발전의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한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www.kwangshin.ac.kr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농식품 수급안정

**지분 부동산**  
삼립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www.kwangshin.ac.kr

식품산업육성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광주일보 70주년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혁신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